

보도	2024.1.9.(화) 석간	배포	2024.1.8.(월)	
담당부서	상품심사판매분석국 투자상품팀	책임자	팀 장	심서연 (02-3145-8236)
		담당자	선 임	정지운 (02-3145-8238)

[금융꿀팁] <149>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 제3편 투자
- 금융투자상품은 자금운용계획,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세요!

□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

◦ 이에 지난번 보험편(143번째), 예·적금편(146번째)에 이어 금융 투자상품편을 149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「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」 시리즈

순서	내 용
1	보험상품은 소득수준,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세요!
2	예·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!
3	금융투자상품은 자금운용계획,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세요!
4	신용카드는 소득수준, 재무계획 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사용하세요!

신입사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금융투자상품 정보

- ① 안정적인 적립식 펀드투자를 통해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세요.
- ② 펀드 선택시 '위험등급', '수익률', '운용규모'를 살펴보세요
- ③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를 적절히 활용하세요.
- ④ 종류형 펀드 투자시 장기투자는 종류(클래스) A, 단기투자는 종류(클래스) C가 유리해요.
- ⑤ 해외주식·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변동 위험에 주의하세요.

1

안정적인 적립식 펀드투자를 통해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세요.

- 신입사원은 장래 결혼, 주택구매, 투자 종잣돈 등에 사용할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 안정적인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적립식* 펀드투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* 일정기간(매월, 매분기 등)마다 동일금액으로 매수하는 것

- 적립식 펀드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.(Cost Average 효과)
- 주가는 보통 상승·하락을 반복하므로 자연히 고가일때는 적은 수량을, 저가일때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

- 한편, 금융회사의 '자동매수*'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 및 펀드매수가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적립식 펀드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

* '자동이체', '자동매수', '자동투자' 등 회사별로 명칭은 차이가 있음

< 적립식 VS 거치식 수익률 비교(예시) >

◆ (시나리오) 투자원금 480만원을 첫달에 모두 투자한 경우(거치식)와 매월 1일에 120만원씩 투자한 경우(적립식)

※ 펀드기준가는 상승 및 하락을 거쳐 4개월 뒤 최초 기준가와 동일해 진 경우를 전제

(단위 : 좌, 만원)

구분		1월 1일 (기준가: 10)	2월 1일 (기준가: 12)	3월 1일 (기준가: 10)	4월 1일 (기준가: 8)	5월 1일 (기준가: 10)	비고
거치식	신규매수	48	-	-	-	-	거치식투자 대비 적립식투자가 손익 변동 폭이 작아 안정적이며, 장기적 으로 평균매수단가 감소 및 수익률 상승 가능성 큼
	보유수량	48	48	48	48	48	
	투자원금	480	480	480	480	480	
	평가잔액	480	576	480	384	480	
	평균매수단가	10	10	10	10	10	
	투자수익률	0%	20%	0%	△20%	0%	
적립식	신규매수	12	10	12	15	-	
	보유수량	12	22	34	49	49	
	투자원금	120	240	360	480	480	
	평가잔액	120	264	340	392	490	
	평균매수단가	10.0	10.9	10.6	9.8	9.8	
	투자수익률	0%	10%	△6%	△18%	2%	

2 펀드 선택시 '위험등급', '수익률', '운용규모'를 살펴보세요

□ 펀드 선택시 우선 펀드의 위험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.

- 펀드는 투자위험에 따라 보통 1~6등급으로 분류되며, 1등급이 기대수익률 및 원금손실 위험이 가장 높고 6등급이 가장 낮습니다.
- 금융회사 홈페이지, (간이)투자설명서 등에 표시된 위험등급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합니다.
 - 다만,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고위험 펀드에만 투자하기 보다는 일부는 저위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 - 또한, 고위험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당장 1~2년 안에 필요한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.

<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* >

등급	신규펀드(설정 3년 미만)	설정 3년 경과
1등급(매우 높은 위험)	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 ②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	<div>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</div> <div> 최대손실률 높음 최대손실률 낮음 </div>
2등급(높은 위험)	① 고위험자산(주식, 파생상품 등)에 80% 이상 투자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	
3등급(다소 높은 위험)	①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 ②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	
4등급(보통 위험)	①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 ② 중위험자산(BBB-등급 이상 채권 등)에 최소 60% 이상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	
5등급(낮은 위험)	① 저위험자산(국공채 등)에 최소 60% 이상 투자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	
6등급(매우 낮은 위험)	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	

* 금융위·금감원은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 운용되던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투자성상품의 위험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(『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』)을 마련('23.1.25.)

- 아울러, 신용융자 등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(일명 “빚투”)는 주가 하락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, 소득·자산수준에 맞는 투자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

□ 다음으로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.

- 과거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지만, 과거 성과가 좋았던 펀드가 향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
- 이때, 몇 개월간의 단기수익률에 현혹되기보다는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
※ 금투협 펀드다모아(fundamoa.kofia.or.kr)에서 수익률 상위 펀드 조회 가능



□ 끝으로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펀드의 운용규모가 작을 경우 분산투자 등 정해진 운용전략 실행이 어렵거나 운용사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
- 소규모 펀드*는 운용사에 의해 임의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*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,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해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(자본시장법시행령 §223 제3호, 제4호)

3

3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를 적절히 활용하세요.

- 신입사원은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를 개설하여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.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.5%*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* 단, 총 급여액 5,500만원 초과시 13.2%

<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>

총급여액*	5,500만원 이하	5,500만원 초과
세액공제 대상 납입액	900만원 (단, 연금저축계좌만 납입한 경우는 600만원)	
세액공제율 (지방소득세 포함)	16.5%	13.2%
최대환급액	148.5만원 (=900만원 X 16.5%)	118.8만원 (=900만원 X 13.2%)

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전제(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4,500만원이 기준)

- 다만, 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거나(IRP) 중도인출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가능사유 및 적용세율 >

구 분	연금저축	IRP*	적용세율
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	○	○	연금소득세 (3.3~5.5%)
개인회생·파산선고	○	○	
천재지변	○	○	
사망·해외 이주	○	X	
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	○	X	
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	○	X	
무주택자 주택구입·전세보증금	○	○	기타소득세 (16.5%)
사회적 재난	○	○	
퇴직급여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	○	○	
그 외의 사유	○	X	

* IRP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좌 (전부)해지는 가능

□ 한편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를 이용할 경우 배당·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(서민형·농어민형은 400만원)까지 비과세되고,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.

◦ 따라서, 먼 미래에 필요한 노후자금과 결혼, 주택구매 등 중단기 필요자금을 구분해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를 이용하고 중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
<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주요 특징 >

특징	일반형	서민형	농어민형
가입 요건	· 공통요건 :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 있는 만 15~18세 · 총급여 5,000만원 이하 ·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 ·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 농어민		
비과세 한도	200만원	400만원	
비과세한도 초과시	· 손익통산후 계약만기시점에 저율(9.9%)* 분리과세(과세이연) * 일반 금융소득(이자+배당)에 대한 세율은 15.4%		
의무 가입기간	3년		
납입 한도	· 총 납입한도 : 1억원 · 연간 납입한도 : 2천만원(미불입금액은 이월납입가능)		
세액 공제	· 요건 : 만기해지후 60일 이내 계좌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 · 금액 : 납입금액 10%를 세액공제(300만원 한도)		
중도 인출	· 납입원금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인출가능 · 단,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음(추가납입 불가)		
중도 해지	· 3년이내 계약 해지시 일반과세(15.4%) 적용 · 부득이한 사유*로 인한 중도해지는 조세해택 유지 * 사망, 해외이주,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 입원·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 등		

4

종류형 펀드 투자시 장기투자자는 종류(클래스) A, 단기투자자는 종류(클래스) C가 유리해요.

□ 종류형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 가입시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비용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, 하나의 펀드 안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다른 여러 종류(클래스)가 있는 펀드입니다.

- **종류(클래스) A**는 가입시 1회성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매년 부과되는 판매보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**장기투자**에 유리합니다.
- 반면, **종류(클래스) C**는 판매보수가 종류(클래스) A 대비 높지만 가입시 1회성 판매수수료가 없어 **단기투자**에 적합합니다.

□ (간이)투자설명서에서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표 및 종류별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안내하고 있으므로, 이를 참고하여 자금운용계획에 적합한 종류(클래스)를 고르시기 바랍니다.

< (간이)투자설명서 內 종류별(클래스별) 투자비용 설명(예시) >

클래스 종류	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					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(단위: 천원)				
	판매 수수료	총 보수	판매 보수	동종유형 총보수	총 보수 · 비용	1년	2년	3년	5년	10년
수수료선취 - 오프라인형(A)	납입금액의 1% 이내	1.048%	0.75%	1.360%	1.0526%	207	317	431	673	1,366
수수료미징구 - 오프라인형(C)	없음	1.248%	0.95%	1.580%	1.2526%	128	262	400	691	1,521

주) **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5년이 경과되는 시점**이며,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5

해외주식·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변동 위험에 주의 하세요.

- 해외주식·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**환율의 변동**에 따라서도 투자손익이 달라집니다.
- 따라서, 주요 투자판단요소로 투자상품의 위험도, 기대수익률 뿐만 아니라 **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**해야 합니다.
- 한편, 환율변동 위험을 줄인 **환헤지(hedge)** 상품도 있으며 상품명에 (H)로 표시되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비환헤지 상품은 상품명에 (UH)로 표시되며, 상품명에 (H)/(UH)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상품설명서를 통해 환헤지 여부 확인 가능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참고

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특징

-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①판매수수료 부과방식, ②판매경로, ③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

종류(Class)		집합투자기구의 특징
판매 수수료	수수료 선취(A)	-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(1회성 비용) 징구 - 판매보수는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상대적으로 저렴
	수수료 후취(B)	- 집합투자증권 환매(매도)시점에 판매수수료(1회성 비용) 징구 - 판매보수는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상대적으로 저렴
	수수료 미징구(C)	- 판매수수료 미징구 - 판매보수는 판매수수료선·후취형(A,B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
	수수료 선후취(D)	-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및 환매(매도)시점에 판매수수료 각각 징구 - 판매보수는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상대적으로 저렴
판매 경로	온라인 (e)	- 온라인전용으로 판매 - 오프라인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저렴
	오프 라인	- 오프라인전용으로 판매 - 온라인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높음
	온라인 슈퍼(S)	- 일명 ‘펀드슈퍼마켓’*을 통하여 판매 - 오프라인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저렴 *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해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(www.fosskorea.com)
	직판(J)	-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 - 판매회사를 통한 판매보다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
기타	보수채감 (CDSC)	- 판매수수료 미징구 - 판매보수는 초기에 매우 높은편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낮아짐
	무권유 저비용(G)	-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
	개인연금 (P1)	-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수 가능
	퇴직연금 (P2)	-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수 가능